

큰스님 수행한담

행복을 키우는 씨앗



○지난 8월5일 고성 건봉사에서 열린 제6차 전국염불 만일회에 참석중인 법천스님. 우측에서 두번째.

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도 권력도 돈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IMF 경제한국에서 해매고 있는 것도 다 그러한 데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진리는 역시 불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불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많은 불자들이 염불에 관심을 갖고 아침 저녁으로 정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종종 불자들이 내게 염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묻곤합니다.

분별의 눈으로 보기때문에 한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마음의 눈을 뜨고 살면 우주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요

리는 겁니다. 나라고 별 방도가 있겠소. 그래서 내가 구병사식을 해주고는 "생명을 내놓고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요"하고 일러주었더니 그 부인이 지극정성으로 매일 절에 와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지극한 마음이 최상책" '돈·권력에 집착' 고통·불행의 원인

염불이 그저 목탁치면서 목청껏 소리를 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염불할 때에 북하고 징 두드리는 것도 다 법이 있습니다. 청명염불하는 것도 다 법이 있어요. 아침저녁 씻을 때도 법이 있습니다.

만 불려야 하는지 관세음보살만 불려야 하는지도 묻습니다. 관세음보살도 아미타불도 결국에는 다같은 부처님 아닙니까. 어떤 쪽이든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합니다.

하고 인박관심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다. 상원사 수련소에 있을 때 방한암 스님에게도 참선지도도 받았습다. 참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때리면 아프다. 성을 냅니다. 이것은 어떤 눈이 성을 내는 것인가. 또 때운 것 짠 것을 먹고, 짜다, 쓰다, 달다 하는 이것을 분별하는 것.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 이런 분별을 일으키는지를 알아 내는 것이 바로 참선이지요.

나의 수행일기



이정행

(장호원 컨트리클럽 사장)

바쁜 하루 일과가 끝난 밤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는 시간을 갖곤 한다. 명상에 잠길때면 마음의 문을 통해 나 자신을 볼 수 있어 진정 깨어있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느끼게 된다.

간경화 말기인 남편의 투병생활. 남편의 슬픔 헤아릴 수 있는 기회로

된 것이다. 간경화 말기라는 병명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은 남편이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공덕과 위력으로 병을 극복하고 새 삶을 찾는 과정을 곁에서 함께 하면서 불자로서의 나의 삶 또한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단단해 졌다.



지난해 5월초, 남편은 여느때처럼 아침 조식에서 직원들에게 훈시하고 또한 5일은 자신의 몸무게를 감량하는 달로 정하겠다는 다짐을 했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달 말경, 남편의 몸무게가 이틀사이에 6킬로그램이나 늘어났고, 소화가 되지 않자 나는 남편을 삼성의료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1999학년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야간)
1.모집학과 및 전공
가.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나.불교사학과: 불교사, 예술사
2.지원자격: 4년제 대학졸업자(예정자)
3.전형방법
가.석사과정
1)일반전형: 필기시험(영어, 전공) 및 면접
2)특별전형: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나.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4.전형일시: 1998년 11월 19일(목) 14:00
5.제출서류
가.입학원서 1부(본 대학원 소정양식)
나.사진 5매(3개월 이내 반명함판)
다.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라.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
마.주민등록 초본 1부(병적사항 기재요)
바.본교 정각원장 추천서 및 이력서 1부
사.승적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6.공통사항
1.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11월 5일(목)-11월 13일(금) 평일 09:30-17:00까지(토, 일, 일요일은 제외)
100-17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학부
02)260-3097,8

탄허대중사 제15주기 추모기념 화엄사상 학술강연회 및 화엄경론회석 출판기념회
초청의 말씀
귀의 삼보하유고
만물이 수장된 계절 귀사와 귀객의 평안과 건강을 축원합니다.
이런 강연회는 화엄사상과 민족통일이라는 주제하에 우리민족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판기념회는 이통현장자의 화엄경론회석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탄허대중사에서 현토·번역 하시고 원조각성 큰스님이 강제한 것을 이번이 한번에 한권의 책으로 집대성 출판하여 그 기념회를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이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엄사상 학술강연회
일시 1998년 11월 14일(토) 오후 1:30~5:00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3층
주제발표
이통현장자의 화엄사상 - 화엄경론회석과 화엄현담의 비교
화엄사상 연구와 탄허대중사 - 화엄사상 연구에서 탄허대중사의 위치
한국역사사 화엄사상 - 한민족의 통일과 화엄사상
화엄경론회석 출판기념회
일시 1998년 11월 14일(토) 오후 5:30~7:30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층
거자 이통현장자 원저, 탄허대중사 현토·번역, 변각성큰스님 강해.
규격 4x6 배판, 양장 약 830페이지
주관: 한암·탄허대중사 문도회,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후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진흥원, 동아일보사, 불교신문사, 불교방송사,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법보신문사, 주간불교신문사.
문의처: T. 02)237-4438 F. 02)237-4439
한암·탄허대중사 문도회 회장 김인허.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전창렬